

1월9일(월)/히11:17~40 (1)

제목: 불합리한 명령

아브라함은 아들을 받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순종하였다(17절).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통해서 장차 많은 후손을 보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바쳤다(17절). 얼마나 이율배반적인 하나님의 모습인가? 이 아들을 통해서 많은 후손을 보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주셔놓고 그 아들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겠다는가?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이 있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들까지 다시 살리실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었다(19절). 아브라함은 아들을 죽였을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다.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은 모두 인간의 이성으로는 받아드릴 수 없는 것이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의 생명을 취하겠다고 하셨다. 우리에게도 종종 이해할 수 없고 설명 불가능한 명령이 주어질 때가 있다. 그 때 우리는 큰 곤란을 겪는다. 그러나 그 불합리한 명령이 하나님에게로부터 온 것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반항하지 말고 받아드려야 한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으로 저에게 손해를 끼치실 분이 아닙니다. 기꺼이 당신에게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한다.

1월10일(화)/히11:17~40 (2)

제목: 자식 대에라도 이루어집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과 야곱과 에서의 신앙을 소개하고 있다. 이들의 공통점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밟지는 못했지만 그 약속의 땅을 믿음으로 확신하였다는 사실이다. 이삭은 유목민으로서 여러 땅을 거치면서 살았지만 결국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었다(창35:27~29). 그러나 그는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며 축복하여 주었다(20절). 야곱도 에굽 땅에서 외국인으로 살다가 거기서 생을 마쳤다(창49:33). 그러나 그도 그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하며 축복하여 주었다(20절). 요셉도 마찬가지로 에굽에서 생을 마쳤다(창50:26). 그러나 그는 임종 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에굽을 떠나 약속의 땅으로 가게 될 자기 유골을 메고 나가 약속의 땅에 묻어주기를 유언으로 남겼다(22절).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실현된다고 믿었다. 자신들은 죽어도 하나님의 약속은 살아있다고 믿었다. 그리고 그 약속은 그들의 믿음대로 그들의 후손들에게 다 성취되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신 약속이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실현된다. 혹시 당대에 안 이루어질지라도 자식 대에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1월11일(수)/히11:17~40 (3)

제목: 이해력을 주시는 하나님

모세는 믿음으로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이라 불리기를 거절하였다(24절). 그는 잠시 죄의 향락과 재물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학대받는 길을 택하였고 장차 하나님께 받을 상을 내다보았다(25~26절). 또한 모세는 처음으로 유월절 준비를 하였다. 무교병을 만들고 유월절에 먹을 양을 잡고 대문에 양의 피를 칠했다(28절). 대문에 양의 피를 칠한 것은 천사들이 이스라엘 집의 대문에 있는 피를 보고 그 집을 지나쳐서 죽음의 저주가 오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바로의 장자를 쳐서 바로의 광기를 꺾고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굽에서 탈출시키실 것을 믿었다. 모세는 유월절 명령을 내리신 하나님의 명령을 이해하였고 그것을 준행했다. 모세가 유월절 준비를 한 것은 믿음의 행위였다. 모세는 “유월절의 그 피는 우리를 구원하는 피이다” 라고 이해하였다. 명령을 내리시는 하나님은 그 명령을 이해할 수 있는 힘도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명령을 주실 때 결코 아무 도움 없이 그를 홀로 남겨 두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해야 할 일을 주실 때 그 일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힘도 주시며 또 그것을 완성할 수 있는 힘도 주신다.

1월12일(목)/히11:17~40 (4)

제목: 상식에 반(反)하는 신앙

여호수아가 여리고의 상태를 파악하려고 정탐꾼을 파견했을 때 기생 라합이 그들을 자기 집에 숨겨서 위험을 모면할 수 있게 해주었다(31절). 그로 인해서 여리고가 함락되었을 때 라합과 그의 가족들은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 라합의 이러한 행동은 믿음에서 나온 행동이었다. 라합은 자기 집에 숨긴 정탐꾼들에게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수2:9) 라고 말했다. 사막을 떠돌던, 변변한 무기조차 없었던 유목민이 견고한 성 여리고를 함락시킬 확률은 없었다. 그러나 라합은 하나님께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다고 믿고 그러한 믿음에 생명을 걸었다. 인간의 상식으로 는 절망일 수밖에 없었지만 상식을 초월하는 안목이 라합에게 있었다. 라합은 패자의 편에 선 것처럼 보여 졌지만 그녀는 믿음으로 하나님에게 생명을 걸었다. 크리스찬은 이처럼 현실에 반하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다. 크리스찬은 이처럼 사실에 반하여 하나님을 따르는 자이다. 크리스찬은 이처럼 상식에 반하여 성경을 믿는 자이다. 크리스찬은 현실이 아무리 열악해도 하나님의 편에 서는 자는 궁극적으로 패배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는 자이다.

1월13일(금)/히11:17~40 (5)

제목: 역사공부는 힘이 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의 위대한 인물들인 기드온, 바락, 삼손, 압다, 다윗, 사무엘을 들어서 믿음의 도를 가르치고 있다(32절). 여기에 이름이 기록되어있는 사람들은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일들을 이룬 사람들이다. 이들은 하나님이 객관적인 전력이 우세한 쪽에 반드시 계신 것이 아니란 사실을 알고 믿음으로 모험을 강행한 자들이었다. 이들은 믿음 하나만 가지고 여러 나라를 정복하였고 정의를 실천하였고 약속해 주신 것을 받았고 사자의 입을 막았으며 맹렬한 불을 켜고 칼날을 피하였고 전쟁에서 용맹을 떨쳤고 적의 군대를 물리쳤다(33~34절). 히브리서 기자는 독자들에게 옛날 일을 회상시킴으로 새로운 용기를 주려하고 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옛날에 행하신 이야기를 공부하면 힘이 샘솟는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옛 적에 행하신 그 일을 지금도 하실 수 있다는 확신이 생기기 때문이다. 지난 역사 속에서 무한한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들이 예배드리고 있는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시다. 하나님의 숨씨는 지금도 녹슬지 않았다. 우리가 실망 할 때에 하나님이 행하신 과거의 그 역사 이야기를 많이 읽고 공부해라 한다. 실망하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 공부는 ‘딱’ 이다.



직장 · 가정 예배 모범문



작성자 : 박유신 목사



대한예수교
장로회

안산제일교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2동 647-2(중앙동 7단지 뒤)
Tel.(031)485-0955~7 Fax.(031)401-2370